



공동체 소식



## 연중 제 10주일

하느님, 고통 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니,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희망으로  
고통과 죽음의 신비를 밝혀 주시어, 저희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힘을 깨닫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가정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썸 기도’ 오전 팀 모집

- 일시 : 6/12(수) 오전 11시 첫 모임
- 장소 : 회관
- ☞ 화요일 저녁 팀과 별도로 오전 팀을 모집합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6/16(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미주 한인 체전

- 일시 : 6/22(금) ~ 24(일) 2박3일
- 장소 : 캔사스 시티 부대시설
- ☞ 캔사스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니 만큼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기타

- 6월부터 저녁미사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 앞당깁니다.
- 청주교구 사제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6/9)은 Holy Trinity ‘본당의 날’입니다. 함께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62	216	154/161	20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이원준(요 한)	안광민(야고보)
	김준영(요 셉)	고평원(프란치스코)
차주	정예찬(미카엘)	안광희(크리스토퍼)
	안지영(가타리나)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가타리나)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가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Holy Trinity 본당의 날	
차주	김주연, 최선윤, 이영민, 임지현, 윤유나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네스)	문석찬(요 셉)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5/26	70명	302불	1,230불
06/02	83명	404불	1,210불

☞ 익명으로 100불 감사헌금 있었습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려 내셨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께서서는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자애심을 지니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고스란히 내어 드리도록 합시다.

### 성화해설

예수 성심을 응시하는 성녀 말가리다

(지퀸토 코라도, 1765, oil on canva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예수 성심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살게 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목숨까지 바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예수 성심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예수 성심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1열왕 17,17-24 <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 있소.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 이 다 -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저를 웃지 못하게 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주님 제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고  
 구령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

○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그 성도들이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움은 잠시 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

○ 주님 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는 분이 주님 되시옵소서.  
 이 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소서. 주 저의 하느님이여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

제 2 독서 : 갈라 1,11-19

<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루카 7,11-17 <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 세 마

##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



파리 시내 북쪽, ‘몽마르트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는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조화시킨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71년부터 성당건축 모금 운동을 시작하여 1914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19년에 축성식을 가진 성당입니다. 지금 이 성당은 ‘예수 성심 성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삼위와 관련된 주제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당 이름을 정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 성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성심 신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한 다음에 오는 금요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정하여 한 달 동안 예수 성심을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중세에서부터 이러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경하는 예수 성심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역대 교황님들도 예수 성심 신심을 승인하고 널리 권장하는 문헌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로 이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1독서와 복음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기적을 베풀어 잠시 동안 살 길을 열

어주었지만, 결국 신세를 졌던 시돈 지방 사렙타 마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탄식 속에서 엘리야에게 울부짖었고, 엘리야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하느님께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린 다음에야 아이를 살려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상적인 장례를 치르고 있던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 과부가 어떤 청도 하지 않았으나 먼저 다가가시어 죽은 이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원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에 다시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청을 올릴 때뿐만 아니라, 미처 청을 올리지 못했을 때도 늘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치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가 미처 청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교인을 박해하는 바오로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그분을 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 서울대교구 전영준 바오로 신부 -



# 마중물

## 다이너스 카드의 기원

1950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자신의 주요 고객들을 초청해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다. 만찬이 끝나고 돈을 지급하려는 순간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알았다. 그는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해 고객들 앞에서 툭툭히 망신을 당했다. 그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자신이 봉변당한 것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현금이 없을 때 음식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사람은 장시간의 연구 끝에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카드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Diners Card)다. 다이너스 카드는 이름 그대로 맥나마라가 저녁(Dinner)을 먹다가 곤혹을 치른 후에 만든 카드라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는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허점투성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허점투성이 제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 39.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전해진 이 메시야의 나라는 모든 민족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43항).

이 나라는 가난하고 미소한 자들, 곧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루카 4,18) 파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과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마태 5,3)이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44항).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회개를 호소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임”(루카 15,7)을 그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최상 증거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마태 26,28)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45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